

부정극어 *더 이상*의 분포와 의미 -특히 부정함축술어와 관련하여-

최진영 · 이정민

서울대학교

Choi, Jinyoung and Chungmin Lee. 1998. **The Distribution and Meaning of the NPI *te isang***. *Language and Information* 2.1, 42-78. This paper proposes a semantics of the Korean NPI *te isang* 'anymore', which occurs in negative contexts. The NPI *te isang* is characterized, in Zwarts's (1990) term, as a strong NPI which requires an anti-additive function as its licenser. It is also noted that *te isang* is licensed by "implied negative predicates" such as *silheha-* 'hate' and *phokiha-* 'give up' only when it occurs within a clausal argument of the implied negative predicates. This fact is accounted for in terms of the function-argument structure and the scope relation between the NPI *te isang* and the implied negative predicates involved. (Seoul National University)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부사 *더 이상* 'anymore'의 분포와 의미론적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말뭉치 자료의 용례들을 토대로 하여 *더 이상*이 한국어에서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줄여서 NPI)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이고, Zwarts(1990)의 부정극어 유형론에 입각하여 *더 이상*이 "강한 유형(strong type)"의 NPI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부정극어 *더 이상*

을 허가하는(license) 부정함축술어에 대한 것인데, 이들 부정함축술어들이 *더 이상*을 허가할 때의 제약을 분석하면서, 이 술어들이 다른 부정극어들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그간 주로 *아무(도)*에만 국한되었던 한국어 부정극어의 연구가 보다 포괄적인 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정극어의 성격 규정과 이들의 허가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본고의 작업이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

2. *더 이상*에 대한 선행 연구

한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무도*라는 표현에 집중되어 왔다. Lee(1996)는 *아무*가 부정극성을 띠기도 하고, 자유선택의 의미로도 쓰이는 두 가지 용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김운신(1995)은 *아무*가 조사와의 결합관계에 따라 의미차이를 드러내는 점을 포착하였다. 이 외에도 시정곤(1997)은 부정극어 *아무도*의 허가조건을 지배 개념을 빌어 통사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더 이상*에 관한 논의는 Nam(1996)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Nam(1996)은 부정극어의 유형론을 논하면서 한국어의 부정극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더 이상*은 그 중 강한 유형(strong type)의 부정극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ung(1997)에서는 *더 이상*을 포함하여 한국어 부정극어 표현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Nam(1996)과 Chung(1997)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2.1. Nam(1996)의 논의

Nam(1994, 1996)의 유형론은 Zwarts(1990)에 기반하고 있다. Zwarts(1990)는 부정극어들을 그 허용환경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약한 유형(weak type)”의 부정극어로서 하

향함의(downward entailing) 또는 단조감소(monotone decreasing) 함수 표현을 요구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부정의 정도가 더 강한 반(反)가법 함수(anti-additive function) 표현을 요구하는 강한 유형(strong type)의 부정극어이다. Zwarts는 약한 유형의 예로서 영어의 *any, ever*, 독일어의 *hoeven* 'need', *brauchen* 'need' 등을 들고 있고, 강한 유형의 예로는 화란어의 *ook maar iets* 'anything at all', 독일어의 *auch nur irgendwas* 'anything at all'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Nam(1994, 1996)은 또 다른 유형, 즉 반가법 함수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반(反)연산 함수(antimorphic function)에 의해서만 허가되는 부정극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가장 강한 유형(strongest type)”의 부정극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에서는 *아무-N-도, -밖에* 등은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하-* 'lift a finger', *그렇게* 'so much' 등은 강한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 (1) a.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가세요.
- b. 나를 더 이상 괴롭히면 떠나겠다.
- c. *더 이상 악화되었다.

¹부정극어의 허용자(licensor)는 다음의 정의에 의해 분류된다.

- (i) Let $\langle A, \leq \rangle$ and $\langle B, \l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 a. $f \in [A \rightarrow B]$ is monotone decreasing iff
for all $\alpha, \beta \in A$, if $\alpha \leq \beta$, then $f(\beta) \leq f(\alpha)$.
 - b. $f \in [A \rightarrow B]$ is anti-additive iff
for all $\alpha, \beta \in A$, $f(\alpha \vee \beta) = f(\alpha) \wedge f(\beta)$
 - c. $f \in [A \rightarrow B]$ is anti-multiplicative iff
for all $\alpha, \beta \in A$, $f(\alpha \wedge \beta) = f(\alpha) \vee f(\beta)$
 - d. $f \in [A \rightarrow B]$ is anti-morphism iff
 f is anti-additive and anti-multiplicative.

단조감소(monotone decreasing) 함수, 반가법(anti-additive) 함수, 반연산(antimorphic) 함수는 부분집합 관계로 순서화(ordered)되어 있다. 즉, 반연산 함수는 반가법 함수의 부분집합이며, 반가법 함수는 단조감소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 (2) a. ??나는 아무도 오기 전에 몸을 숨겼다.
 b. *만일 아무도 가면, 내가 가겠다.
 c.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가겠다.

(1)에서 보듯이, 더 이상은 (1a)의 시간 부사절 -기 전에 절과 (1b)의 -(으)면과 같은 조건 부사절에 의해 허가되고 있는데, -기 전에와 -(으)면은 모두 반가법 함수로 해석된다. (1c)는 더 이상이 부정극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기 전에 절과 -(으)면과 같은 조건절에 아무도가 나타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고 Nam(1996)은 판단하고 있다. 즉, 아무도는 반가법 함수보다 더 부정의 의미가 강한 맥락을 요구하는 가장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유형인 더 이상을 허용하는 환경으로서 “준-조건절 (psuedo-conditional)”인 -아도/어도, 는데도, -더라도 등과 비교구문 -보다, 그리고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들은 3.1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Chung(1997)의 논의

Chung(1997)은 Nam(1996)의 세 가지 유형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

²-기 전에와 -(으)면이 반가법 함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i) a. 철수는 [영희나 순이가 오기 전에] 떠났다.
 ↔ [철수는 영희가 오기 전에 떠났]-고, [철수는 순이가 오기 전에 떠났다].
 b.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기온이 떨어진다.
 ↔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오면 기온이 떨어진다].

³-어도 등의 양보 표현이 조건과 같은 함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정민(1979)에서 ‘양보절은 그 안에 조건을 안고 있다’고 한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Lee(1996)는 아무-N-이-라도, Wh-N-이-라도 등의 -라도를 양보절의 -어도 등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양보(concession)” 개념을 부정극성(negative polarity)과 자유선택(free choice)적 의미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어 *아무도*가 명시적 부정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Nam(1994, 1996)이 주장한 것만큼 그렇게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 (3) a.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나는 몰래 그 방에서 빠져나갔다.
 b. 존은 아무것도 모른다.
 c. ?톱은 그 중에 아무 학생보다도 똑똑하다.

우선 우리는 (2a)와 (3a)의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이 *-기 전에* 절에 *아무도*가 쓰인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1996)에서도 *아무도 오기 전에*와 같은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하면서, 반연산 함수에 해당하는 명시적 부정(overt negation)에 의해서만 허가될 만큼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극어 *-밖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다.

Chung(1997)은 *더 이상*의 분포에 대해서는 Nam(1996)의 직관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 이상*을 허가하는 표현으로, Nam(1996)이 제시한 환경, 즉, 부정(negation), *-기 전에* 절, 비교구문, 조건절,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에 덧붙여 *술어 없다*, *모르다*를 포함하여 총 6 가지의 허용환경을 설정한다. 그에 따르면, *더 이상*은 위의 모든 환경에서 허용된다. 우선 그가 제시한, *없다*, *모르다*에 의해 *더 이상*이 허가를 받는 예를 아래에 인용해 보겠다.

- (4) 돈이 더 이상 없다/*있다.

그는 부정극어들이 앞서 언급한 6개의 허용환경 중 몇 개에나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가려서 허용가능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부정극어를 4종류로 위계짓고 있다.

strong type(더 이상) < -도가 붙는 NPI < stronger type(전혀, 별로) < even stronger type (절대로, 결코)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허용환경에 대한 성격 규명이 미흡할 뿐더러, 허용에 대한 제약이 의미론적인 것인지 통사론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유형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더 이상의 분포와 성격 규정

2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더 이상이 부정극어 유형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더 이상이 나타나는 보다 다양한 환경들을 조사해보고, 이들이 Zwarts(1990)의 대수적 유형론(algebraic typology)에 따라 반가법 함수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더 이상이 단순 하향함의적 함수 표현에 의해서는 허가되지 않음을 들어 이 부정극어가 Zwarts(1990)의 강한 유형에 속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3.2 절에서는 더 이상을 허용하는 어렵다, 포기하다 등의 부정함축술어들을 제시하면서, 이 술어들이 부정극어를 허용할 때의 허가조건을 규정하고자 한다.

3.1. 강한 유형의 NPI로서의 더 이상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Nam(1996)과 Chung(1997)에서 더 이상의 허용환경으로 밝혀진 것에는 부정문, 조건절, -기 전에 절, 비교급,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 없다, 모르다 등의 술어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을 국어정보 베이스의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¹

¹여기서 '대체로'라고 한 것은 더 이상이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에 쓰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 부정문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다.
 - 어쨌든 나도 더 이상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단다.
- (6) 조건절 : -(으)면
- 더 이상 계속하면 질투, 시기로 간주할테니 그리 알아.
 - 더 이상 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눈물이 와락 쏟아졌기 때문이다.
- (7) -기 전에 절
- 개인정보의 수집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해야겠지만...
- (8) 비교구문 : -보다
- 반민주적인 부르췌아 민주주의에 더 이상 기대를 걸기보다는 민중정권의 수립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
- (9) *없다, 모르다*
-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을 더 이상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 . .
 -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방법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 이젠 더 이상은 모르겠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말뭉치의 용례들을 옮겨 실은 것이다. 주2, 5에서 확인하는 바처럼, *더 이상*을 허가하고 있는 위의 표현들은 모두 반가법(anti-additive) 함수로 해석된다.*

또한, 말뭉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어 왔다.

*비교구문이 반가법 함수로 해석된다는 것은 다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i) 철수는 [영희나 순이보다] 키가 크다.
 ↔ [철수는 영희보다 키가 크]-고, [철수는 순이보다 키가 크다].
 *없다, 모르다가 반가법 함수로 해석된다는 것은 3.2.3절에서 보이도록 하겠다.

- (10) 준-조건절 : -아도/어도, -는데도, -더라도
 더 이상 비가 와도 경기는 계속될 겁니다. (Nam 1996)
- (11)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
 a. 더 이상 결석하는 학생은 모두/다 성적을 받을 수 없다. (Nam 1996)
 b. 더 이상 지체한 사람은 모두 기차를 놓쳤다. (Chung 1997)

준-조건절과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 역시 반가법 함수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다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12) [비가 오거나 눈이 오-아도] 그 일을 쉬지 않았다. ↔ [비가 와도 그 일을 쉬지 않았]-고, [눈이 와도 그 일을 쉬지 않았다].
- (13) [숙제를 두 번 안 냈거나 시험을 한 번 안 본 학생]은 모두/다 낙제할 겁니다. ↔ [[숙제를 두 번 안 낸 학생]-하고, [시험을 한 번 안 본 학생]]은 모두/다 낙제할 겁니다. (Nam 1996)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칭양화사를 머리명사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극어 *더 이상*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14)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위 예는 영어와는 달리 관계절 머리명사가 전칭양화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절 안에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용한다. 이때 *더 이상*이 나타난 맥락은 화제 표자(topic marker) 은/는이 붙어 형성된 총칭(generic) 명사구이다. 이는 Lee(1996)가 언급한 *아무-N-이-라-도*와 같은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조건이 총칭성으로 충족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극어 *더 이상*이 반가법 함수표현과 함께 나

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예는 Lee(1998)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허용환경으로 명시적 부정만을 갖는 가장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사의문문에 의해 부정극어 -밖에가 허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5) 그 일을 너밖에 누가 할 수 있겠니?

수사의문문은 -밖에 뿐 아니라 더 이상 역시 허가한다.

(16)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국어정보베이스)

위의 예문과 같이 수사의문문은 각각 ‘그 일을 너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와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함축한다. 통상적으로 의문문은 하향함의 함수도, 반가법 함수도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의문문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문문과는 언표내적 효력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수사의문문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용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또 허용여부가 부정극어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할지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Linebarger(1987)의 허용조건을 원용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허용조건이 너무 느슨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수사의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은 반가법 함수에 의해 허가되며, 반가법 함수보다 부정성이 약한 하향함의(downward entailing) 함수 표현에 의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기껏

⁷논평자는 상향함의적 표현인 양화사 대부분/몇몇-을 머리(head)로 하는 관계절 내에 더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논평자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매우 어색하다.

(i) ?*너 이상 결석한 학생 대부분/몇몇-은 F학점을 받을 것이다.

해야 n 명 'at most n N(people)'에 해당하는 표현은 하향함의 함수로 해석되지만, 반가법 함수 표현은 아니다.

- (17) a. 빨리 달린다 → 달린다
 b. 기껏해야 세 명이 [달린다]. →, ←
 c. 기껏해야 세 명이 [빨리 달린다]. (이정민 1994 참조)

집합으로 나타내면, **빨리 달린다**는 **달린다**가 가리키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 즉, 빨리 달리는 사람의 집합은 달리는 사람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함의의 방향은 (17a)와 같다. 그런데 두 표현이 **기껏해야 세 명**이라는 함수 표현의 논항으로 들어가면, 함의의 방향이 바뀌어 (17b)는 (17c)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껏해야 세 명**과 같은 표현은 원래의 함의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하향함의 함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반가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18) a. 기껏해야 세 명이 [노래하거나 춤춘다].
 →, ←
 b. [기껏해야 세 명이 노래하]-고, [기껏해야 세 명이 춤춘다]

(18a)는 (18b)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합 내에 {철이, 돌이, 영희, 순희}가 존재하고, 이 중 {철이, 돌이, 영희}는 노래를 하고, {영희, 순희}가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18b)는 참이지만, (18a)는 거짓이다. 따라서 (18b)에서 (18a)로의 함의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므로 그 진리치가

위 문장의 비문법성은 양화사 대부분/몇몇-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양화사를 없애고 **결석환을 결석하는**으로 대치시켜서 조건적 의미를 포함하는 총칭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ii) 더 이상 결석하는 학생은 F학점을 받을 것이다.

거짓이 된다. 이와 같이, *기껏해야 세 명과 같은 표현*은 하향함의 함수일 뿐이지 반가법 함수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1996)는 한국어의 부정극어 표현 중 *아무-N-도*는 강한 부정 맥락을 요구하는 반면, *아무-N-이-라-도*는 약한 부정맥락에서도 허가되어, 약한 유형의 부정극어인 영어의 *any*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였다. *아무-N-이-라-도*는 *기껏해야 세 명과 같은 단순 하향함의 표현에 의해 허가* 받을 수 있다.

- (19) a. 기껏해야 학생 세 명이 아무 표라도 구했다.
 b. *철수가 아무 표라도 구했다.
 c. 기껏해야 학생 세 명이 동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었다.
 d. *철수가 동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었다.

(19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껏해야 세 명과 같은 하향함의 표현*은 부정극어 *아무 표라도*를 허가한다. (19c)는 *아무* 대신에 수량 표현으로 구성된 부정극어가 *기껏해야 세 명에 의해 허가*되고 있다. 이 하향함의 표현을 *철수가와 같은 상향함의 표현으로 바꾸면* (19b,d)처럼 비문이 된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 의해 *더 이상이 허가*되는지를 따져보기로 하자.

**아무-N-이-라-도*는 존재적(existential) 의미를 담고 있고,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칭적(universal) 의미를 나타내는 자유 선택적 용법과 다르다고 하겠다. 부정극성을 띠는 *아무-N-이-라-도*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허가된다.

- (i) a. 아무하고라도 데이트 해 본 사람이 기껏해야(?*적어도) 세 명이었다.
 b. 메리는 아무 친구라도 만나면 손을 흔든다.
 c. 아무라도 사랑해 본 사람은 이별의 고통을 안다.
 d. 아무 표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Lee 1996)

반면,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아무-N-도*는 허가되지 않는다.

(20) *기껏해야 세 명이 더 이상 노래한다.

이 문장의 주어인 기껏해야 세 명을 술부의 의미인 집합을 진리치로 보내는 함수 표현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이 기껏해야 세 명이라고 하는 하향함의 함수의 논항 내에 있지만, (20)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사실은 부정극어 더 이상은 기껏해야 세 명과 같은 하향함의 표현에 의해서 허가 받을 수 없고, 하향함의 표현보다 더 강한 부정표현인 반가법 함수에 의해서 허용되는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라는 것을 보여준다.

3.2. 더 이상과 부정함축술어

3.2.1. 현상

말뭉치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더 이상이 다음과 같은 부정함축술어들과 함께 나타나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 (21) a. 간첩들은 더 이상 항거하기를 포기했다.
 b. 기호는 그에게 더 이상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c. 그렇다고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누기도 귀찮았다.
 d. 지방 관청은 더 이상 조개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어정보베이스)

(21)에서 더 이상은 부정의 의미를 함축한 포기하다, 어렵다, 귀찮다, 방지하다 등의 술어들에 의해 허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술어들을 부정함축이 없는 다른 술어들로 대체시켰을 때 비문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2) a. *간첩들은 더 이상 항거하기를 원했다.
 b. *기호는 그에게 더 이상 말을 걸기가 쉬웠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부정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용하는 술어들을 “부정함축술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론적인 개념으로서 언어 보편적으로, 또 통사범주를 넘어서 적용될 수 있다.

국어정보베이스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발견한 부정함축술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3) 싫어하다, 포기하다, 삼가다, 주저하다, 멈추다, 중단하다, 거부하다, 피하다, 어렵다, 힘들다, 곤란하다, 귀찮다, 불가능하다, 싫다, 금지하다, 방지하다, 막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술어들이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가하는 용례들을 아래에 옮겨 보기로 한다.

- (24) a. 대치는 동진에게 *더 이상* 말을 거는 것을 삼가고 묵묵히 걸어갔다.
 b. 일급 과학자들은 *더 이상* 차가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다.
 c. 한고조는 *더 이상* 무력을 통해 흉노를 정벌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d. 연일 계속된 공격으로 피로가 극에 달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e. 다만 영선이 *더 이상* 술을 마셔서는 곤란할 것 같아...
 f. 난 *더 이상* 뛰는 것도 싫고, 누굴 업는 것은 더더욱 싫어!

"Hoeksema and Klein(1995)에서는 부정술어의 의미를 '보어의 존재적 함의(existential entailment)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ee(1996)에서는 "implied negative 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Progovac(1993)에서는 "adversative predicate", Hoeksema and Klein(1995)에서는 "inherently negative predic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일하여 "부정함축술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위의 예문에서 *더 이상*은 밑줄로 표시한 부정함축술어들에 의해 허가되고 있고, 이들을 부정함축이 없는 다른 술어들로 대체시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25) a. *대치는 동진에게 더 이상 말을 거는 것을 바라고 묵묵히 걸어갔다.
 b. *일급 과학자들은 더 이상 차가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고 있다.
 c. *한고조는 더 이상 무력을 통해 흉노를 정벌한다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d. *연일 계속된 공격으로 피로가 극에 달해 더 이상 버티기 쉬운 상황입니다.
 e. *다만 영선이가 더 이상 술을 마서서는 괜찮을 것 같아...
 f. *난 더 이상 뛰는 것도 좋고, 누굴 업는 것은 더더욱 좋다!

지금까지 (23)에 제시된 부정함축술어들을 포함한 맥락이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가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술어들이 *더 이상*을 허가하는 술어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의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은 의미론적인 개념으로서, (23)에 제시된 술어들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술어들도 *더 이상*의 허용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싫어하다*와 의미가 유사한 *꺼리다*, 그리고 *거부하다*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양하다* 등도 *더 이상*을 허가한다.

- (26) a. 철수는 더 이상 거짓말하기를 꺼렸다.
 b. 영선은 친구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기를 사양했다.

그런데, 부정극어 *더 이상*이 부정함축술어에 의해 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술어가 취하는 내포절 내에 나타나야만 한다. 즉, 부정함축술어가 내포절을 보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포절

내에 *더 이상*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다음 예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준다.

- (27) a. *철수는 *더 이상* [논문을] 포기했다.
 b. *철수는 *더 이상* [수학이] 어렵다.
 c. *철수는 *더 이상* [명수를] 싫어한다.
- (28) a. 철수는 [*더 이상* 논문을 쓰기를] 포기했다.
 b. 철수는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c. 철수는 [*더 이상* 명수를 만나기를] 싫어한다.

(27)에서는 부정함축술어들이 명사구 논항을 취하고 있어서 *더 이상*이 수식할만한 성분이 부정술어 그 자체밖에 없다. 반면 (27)에 적당한 술어를 삽입하여 내포절 논항의 형태를 만든 (28)의 경우에는, *더 이상*이 내포절 내의 술어를 수식하면서 부정함축술어의 허가를 받고 있어서, (27)의 비문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함축술어가 명사구 논항을 취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그 명사구를 수식하는 절이 있으면 그 안에 *더 이상*이 쓰일 수 있다.

- (29) a. 나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정신적 여유를] 잃게 되어...
 b. 어린이들은 교사의 대답을 유권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활동을] 포기하게 되며...
 c. 채 일각이 지나기 전에 중인들은 [[*더 이상*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이러한 “내포절 제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부정함축술어 외에 *더 이상*이 수식할 만한 다른 술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안될 수 있겠으나, 논항 위치를 차지하는 부정극어 *아무도* 역시 다음과 같은 내포절 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 (30) a. [아무도 보기] 싫어.
 b. ??아무도 싫어. (Lee 1996)
- (31) a. 나는 [아무도 비난하긴] 싫거든요.
 b. ‘토지’를 명작이라 함에는 [아무도 이의를 내달기] 어려울 것이다. (국어정보베이스)
 c. *‘토지’를 명작이라 함에는 아무도 이의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도는 (30b)와 같이 *싫다*의 직접적인 논항 위치에는 나타날 수 없지만, (30a)처럼 *싫다*의 내포절 논항 내에 쓰일 수 있다. 즉, (30a)에서 *아무도*는 *싫다*의 논항이 아니라 *보다*의 논항인 것이다. (23)에 제시된 모든 부정함축술어가 *아무도*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무도*는 *싫다*, *어렵다* 등의 술어의 내포절 논항 안에서 허가될 수 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다른 부류의 술어들이 있는데, Chung(1997)이 “암시적 부정술어(suppletively negated verb)”라고 명명했던 *없다*와 *모르다*이다. 이들이 부정극어를 허가할 때는 (27)~(31)에서 관찰한 것과 같은 내포절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없다*, *모르다*는 (23)의 부정함축술어들과 구별된다.

- (32) a.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b. 아이들이 겁에 질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다.
- (33) a. 이 호수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다.
 b.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32), (33)과 같이 *없다*, *모르다*는 *더 이상*이 내포절 안에 나타나는 경우와 내포절 없이 쓰이는 경우 모두 *더 이상*을 허가한다. 또, 부정극어 *아무-N-도* 역시 *없다*, *모르다*의 직접 논항 위치에 나타날

¹¹Nam(1994, 1996), Chung(1997)은 *아무도*가 허가되는 맥락이 *더 이상*보다 훨씬 적음을 들어 *아무도*를 *더 이상*보다 더 강한 부정극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함축술어 맥락에서 역시 *아무도*는 *더 이상*보다 더 좁은 분포를 보인다.

수도 있고, 내포절 내의 논항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 (34) a. 아무도 모르게
 b. 아무 도움도 없이 (Lee 1996)
- (35) a. 철수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b.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줄 모른다.

Lee(1996)는 *없다*와 *모르다*를 “내재적/형태론적 부정술어 (intrinsically/morphologically negative predicate)”라고 하고, *싫다*, *틀리다* 등은 “부정함축술어(implied negative predicate)”라고 하여 이들을 구별하고 있으나, 이들이 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Chung(1997)은 *없다*, *모르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 이들과 부정극어 허가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부정함축술어에 대해서는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맥락으로서의 부정함축술어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이 술어들이 내포절 내에서만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분포상의 제약과 이러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 술어 *없다*, *모르다*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3.2.2. 반가법 함수로서의 부정함축술어

3.2.1절에서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가해주는 부정함축술어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 술어들이 Zwarts(1990)의 대수적 의미론(algebraic semantics)의 관점에서 어떤 함수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정극어 *더 이상*이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때, 그것의 허용맥락으로 작용하는 부정함축술어들은 적어도 반가법 함수로 해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36)의 정의에 따라 이 술어들이 반가법 함수로 해석되는지를 따져보기로 하자.

- (36) Let $\langle A, \leq \rangle$ and $\langle B, \l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f \in [A \rightarrow B]$ is anti-additive iff for all $a, b \in A$, $f(a \vee b) = f(a) \wedge f(b)$. i.e., $f(a \text{ or } b) \leftrightarrow f(a) \text{ and } f(b)$
- (37) a. 영희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기를] 싫어한다. \leftrightarrow
 b. [영희는 짜장면을 먹기를 싫어하]-고, [영희는 짬뽕을 먹기를 싫어한다].
 c. 철수는 [돈이나 명예를 얻기를] 포기했다. \leftrightarrow
 d. [철수는 돈을 얻기를 포기했]-고, [철수는 명예를 얻기를 포기했다].

(37)은 부정함축술어 *싫어하다*와 *포기하다*가 반가법 함수 표현임을 보여준다. *싫어하다*가 취하고 있는 내포절의 술어 *먹다*의 두 논항이 이접(disjunction, *or*)의 의미인 *-(이)나*로 묶여있는 (37a)는 *먹다*가 두 논항의 각각 하나씩을 취한 두 문장을 연접(conjunction, *and*)의 의미인 *-고*로 연결한 (37b)와 상호함의관계에 있다. (37c)와 (37d)도 마찬가지로 상호함의적이다.

위의 예는 술어가 내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를 따져본 것인데, 명사구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 술어들은 반가법적으로 해석된다¹².

- (38) a. 영희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싫어한다. \leftrightarrow
 b. [영희는 짜장면을 싫어하]-고, [영희는 짬뽕을 싫어한다].
 c. 철수는 [돈이나 명예를] 포기했다. \leftrightarrow
 d. [철수는 돈을 포기했]-고, [철수는 명예를 포기했다].

¹²논평자는 순수히 의미론적인 함의 관계를 따지는 (38)의 테스트에서, 이접표현인 *-이나*를 화용론적 원리가 개입된 배제적 이접(exclusive disjunction)으로 보고 명제들의 의미관계를 계산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나*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이접(inclusive disjunction)으로 해석됨을 가정하고 있고, 이것은 (3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접으로 해석되는 구문이 *싫어하다*라는 술어에 내포되어 있을 때, 전체의 의미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싫어하다*라는 술어는 어떤 논리적 해석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어휘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38a)와 (38b), 그리고 (38c)와 (38d)가 각각 상호함의 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일부에서는 (38a)의 의미를 이접표현인 -이나가 싫어하다보다 넓은 영향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영희가 짜장면과 짬뽕 둘 중의 하나를 싫어한다’라고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희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었다 처럼 부정함축이 없는 술어가 이접구문을 취하는 문장과 비교해 보면, 이 문장은 영희는 짜장면을 먹었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를 함의할 수 없는 반면에 (38a)는 (38b)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도 싫어하다와 대응되는 표현인 *hate*가 반가법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몇 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즉, *Mary hates dogs or cats*는 *Mary hates dogs and Mary hates cats*와 상호함의적이라는 것을 모국어 화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Mary hates raising dogs or cats*와 같이 술어가 내포절을 취하는 문장에 대한 테스트에서 더 신속한 답변을 했다는 점인데, 이것으로 미루어 부정함축술어가 내포절을 취하는 경우와 명사구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 반가법적 의미 특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싫어하다, 포기하다 등의 부정함축술어들은 내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와 내포절이 아닌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 모두 반가법적으로 해석되는데, 우리가 앞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부정극어 더 이상이 부정함축술어가 이끄는 내포절 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비문이 되었다. 따라서 부정함축술어가 명사구 논항을 취하는 경우 이 술어가 반가법적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을 허가하지 못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3. 대수적 의미론(Algebraic Semantics)의 난점

대수적 의미론의 관점으로는 부정극어들이 부정함축술어가 이끄는 내포절 내에서만 허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 뿐더러, 부정

함축술어와 *없다*, *모르다* 간의 부정극어 허가 양상의 차이를 보여 주기가 어렵다. *없다*, *모르다*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될 때에는 부정함축술어에서와 같은 내포절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를 받는 맥락이 *더 이상*에 비해 훨씬 적은 부정극어 *아무도*가 *없다*, *모르다*에 의해서는 매우 자유롭게 허가된다. 이렇게 *없다*와 *모르다*가 부정함축술어와는 다른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39)에서 보듯이 이 술어들 역시 반가법 함수로 해석된다.

- (39) a. 잔칫상에 [밥이나 떡이] 없다. ↔
 b. [잔칫상에 밥이 없]-고, [잔칫상에 떡이 없다].
 c. 철수는 [순이나 영이를] 모른다. ↔
 d. [철수는 순이를 모르]-고, [철수는 영이를 모른다].

Nam(1994)은 부정극어 *아무도*에 대해 부정의 정도가 가장 강한 반연산 함수를 허용환경으로 요구하는 가장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라고 주장했었는데, *없다*, *모르다*의 경우 *아무도*를 자유롭게 허가하지만 반가법 함수로 해석될 뿐, 반연산 함수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40) a. 잔칫상에 [밥과 떡이] 없다. ↗, ↖
 b. [잔칫상에 밥이 없]-거나, [잔칫상에 떡이 없다].
 c. 철수는 [순이와 영이를] 모른다. ↗, ↖
 d. [철수는 순이를 모르]-거나, [철수는 영이를 모른다].

(40a)와(40b), 그리고 (40c)와 (40d)는 각각 서로를 함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술어들은 반연산 함수로 해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40a)에서 (40b)로의 방향, 또는 (40c)에서 (40d)의 방향으로 함의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인데, 순수하게 논리적인 의미만으로 환원하여 생각한다면, 이 함의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잔칫상에 밥이 없다는 명제를 p로, 잔칫상에 떡이 없다는 명제를 q라고 하자. 그러면, (40a)는 ‘잔칫상에

밥과 떡이 동시에 없다'는 의미이므로 명제논리로 번역하면 $(p \wedge q)$ 가 될 것이고, (40b)는 -거나를 이점으로 해석하여 $(p \vee q)$ 로 번역된다. 그리고 $(p \wedge q)$ 가 참이면 $(p \vee q)$ 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p \wedge q)$ 는 $(p \vee q)$ 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형식으로 환원한 의미와 자연언어의 의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의 경우에는 논리어의 이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즉, 논리어의 \vee 는 자연언어에서 포괄적 이점(inclusive disjunction)으로도, 배제적 이점(exclusive disjunction)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p \wedge q)$ 가 $(p \vee q)$ 를 함의한다고 보는 것은 \vee 를 순수하게 논리적인 의미인 포괄적 이점으로 해석했을 때이다.

반면, 자연언어에서 *p* 이거나 *q*라는 발화를 했을 때는 'p 또는 q, 그러나 p이면서 q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배제적 이점의 읽힘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 의해 $(p \vee q)$ 라는 단언은 \vee 보다 척도(scale) 상으로 더 강한 요소인 \wedge 의 부정을 함축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네 식구는 네 명이다'라는 단언은 '네 명'보다 척도 상 더 강한 요소인 '다섯 명'이 아니라는 것, 즉, '철수네 식구는 다섯 명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점을 고려하여 (40b)를 배제적 이점으로 해석하면, '잔칫상에 밥이 없든지 떡이 없지, 둘 다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어 (40a)와는 어떤 함의관계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여하튼 위의 예에서 -거나가 포괄적 이점으로 또는 배제적 이점으로 해석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40b)에서 (40a), (40d)에서 (40c)로의 함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없다*와 *모르다*는 반연산 함수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연산 함수 표현인 명시적 부정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41) a. 잔칫상에 [밥과 떡이] 있지 않다. ↔

b. [잔칫상에 밥이 있지 않]-거나, [잔칫상에 떡이 있지 않다].

- c. 철수는 [순이와 영이를] 알지 못한다. ↔
 d. [철수는 순이를 알지 못하]-거나, [철수는 영이를 알지 못한다].

명시적 부정의 경우에는 부정이 연접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wide scope negation), (41a)는 ‘잔칫상에 밥과 떡이 둘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어 (41b)를 함의하고, 그 역방향도 성립한다. 그러나 (40a)의 경우 잔칫상에 밥과 떡이 없다라는 문장은 연접이 항상 없다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지게 되어 ‘잔칫상에 밥과 떡 둘 다 없다’라는 의미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40b)와의 함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면, Zwarts(1990)의 대수적 의미론에 입각했을 때, 부정함축술어와 없다, 모르다는 동일하게 반가법 함수로 해석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부정극어를 허가할 때 보이는 분포상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4. 부정함축술어에 대한 선행논의

이 장에서는 영어나 슬라브어, 화란어 등에서 특정술어들이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양상을 포착한 바 있는 Progovac(1993)와 Hoeksema and Klein(1995)의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4.1. Progovac(1993)의 논의

Progovac(1993)에서는 부정극어 *anything*의 허가조건을 함의(entailment)와 결속이론(binding theory)의 결합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부정극어 허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42) a. Mary didn't remember anything.

- b. Mary forgot that anyone came yesterday.
 c. *Mary forgot anything. (Progovac 1993)

(42a)에서 명시적 부정소는 *anything*이 *remember*의 직접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허가해 준다. 반면 Progovac가 “역전적 술어(adversative predicate)”라고 부른 *forget*의 경우에는 (42b)와 같이 명시적 부정이 없어도 부정극어 *anyone*을 내포절 논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42c)처럼 *forget*의 직접목적어 자리에 *anything*이 왔을 때는 비문이 된다. 이처럼 *forget*은 부정극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명시적 부정과 차이를 보이는데 Progovac는 이를 Op라고 하는 운용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Progovac는 부정극어의 허가양상을 크게 “부정 허가(negative licensing)”과 “비-부정 허가(non-negative licensing)”로 나누었는데, 부정 허가라는 것은 명시적 부정에 의해 부정극어가 직접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시적 부정소가 없는 비-부정 허가 경우에는 Spec-CP 자리에 나타나는 Op 운용소에 의해 부정극어가 간접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때 Op는 상향함의(upward entailing) 함수 표현이 아닌 절(clause)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예에 적용시켜보면, (42a)는 부정극어 *anything*이 명시적 부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허용되는 부정 허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42b)의 *anyone*은 *that* 절의 지정어(specifier) 자리에 나타나는 Op에 의해 결속되어 허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물론 ‘*forget*이 이끄는 문장이 상향함의 함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성립할 것이다. (42b)에서 Op에 의해 결속되어 부정극어가 허가를 받는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3) Mary forgot [Op [that anyone came yesterday]]

(42c)가 비문인 이유는 *forget*이 구(phrase)를 논항으로 취하고 있어서 Op가 나타날 수 있는 Comp 자리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될

것이다. 즉, ‘역전적 술어를 포함한 비-부정 허가는 Comp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절(clause)에서만 가능하다’고 Progovac는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어떤 부정술어도 절이 아닌(non-clausal) 논항 위치에는 부정극어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lack*나 *deny*, 그리고 한국어의 *없다*, *모르다*와 같은 술어들은 내포절을 논항으로 취하고 있지 않아도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부정극어 더 이상이 관형어의 형태로 명사구 논항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함축술어들에 의해 허가 받을 수 있다.

- (44) a. John lacks any sense of humor.
 b. Jone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events.
 c. 방에 아무도 없다.
 d. 노사는 더 이상의 분쟁을 중지하고, ...
 e. 차입으로 조달한 돈이 너무 많은 경우 더 이상의 차입은 곤란하다.

(44b)와 같은 경우 *any involvement*의 의미상 이를 절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방법은 또 다른 통사론적 조작을 요구한다 하겠다.

또, Krifka(1995)의 Progovac(1993)에 대한 논평을 참고하면, 그는 Progovac(1993)의 틀을 유지할 때 (42b)와 (42c)의 차이를 Comp의 유무와 같은 통사론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보다 함의관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forget*과 같은 술어들이 내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와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는 함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42b)는 *forget*이 내포절 논항을 취하는 경우로서 상향함의 함수로 해석되지 않는다: *Mary forgot that a woman came yesterday, she might not have forgotten that a person came yesterday.* 따라서 비-상향함의(non-UE) 맥락에 나타나는 Op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될 수 있다. 반면 (42c)는 상향함의문장으로 해석된다: *If Mary forgot a poem by Goethe, then she*

forgot a poem, but not vice versa. 이 경우에는 상향함의 표현인 모문의 Comp에 Op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부정극어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도 한국어의 부정극어의 분포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forget*과 의미상 대응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어에서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맥락으로 작용하는 *싫어하다*와 같은 술어는 내포문을 논항으로 취할 때나 명사구 논항을 취할 때나 항상 하향함의 함수로 해석된다.

(45) 고양이 → 동물

(46) a. 철수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 ←

b. 철수는 [동물을] 싫어한다.

(47) a. 철수는 [고양이 키우기를] 싫어한다. ↗, ←

b. 철수는 [동물 키우기를] 싫어한다.

집합으로 나타내면, 고양이의 집합은 동물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45)와 같은 방향으로 함의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46)처럼 이 두 표현이 *싫어하다*의 논항으로 쓰이면 함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싫어하다*가 내포절을 논항으로 취하고 있는 (47)의 경우에도 그 내포절의 논항 자리에 *고양이*와 *동물*이 각각 들어가면 원래 이 두 명사의 함의관계가 역전된다.

이와 같이 *싫어하다* 등의 한국어의 부정함축술어들은 그것이 취하는 논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하향함의 함수로 해석되기

¹⁵ *싫어하다*가 함의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그것의 심리술어적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심리술어에 속하는 *좋아하다*는 다음과 같이 함의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i) 철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 철수는 동물을 좋아한다.

철수는 동물을 좋아한다. ↗ 철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즉, 철수가 고양이를 좋아하면, 철수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정극어의 내포절 제약을 논항의 종류에 따른 함의관계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접근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2. Hoeksema and Klein(1995)의 논의

Hoeksema and Klein(1995)에서는 영어와 화란어의 말뭉치에서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부정술어들을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예들은 주로 영어표현 *any*의 분포에 기반한 것이므로 한국어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흥미있는 것은 Zwarts의 유형론에서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로 분류되었던 화란어의 *ook maar-indefinite*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내포절 제약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 (48) a. Jansen weigerde ook maar iets ti zeggen.
 Jansen refused anything at all to say
 'Jansen refused to say anything at all.'
- b. *Jansen weigerde ook maar iets.
 'Jansen refused anything at all.'
- c. Jansen ontkende dat hij ook maar iets gezegd had.
 Jansen denied that he anything at all said had
 'Jansen denied that he had said anything at all.'
- d. *Jansen ontkende ook maar iets.
 'Jansen denied anything at all.'

화란어의 *ook maar iets*는 (48a,c)와 같이 부정함축술어 *weigerd*, *ontkende*의 내포절 내에서는 허가되지만, (48b,d)처럼 술어의 직접적인 논항 위치에는 허가될 수 없다. Hoeksema and Klein(1995)은 Partee(1987)의 type shifting의 원리를 도입하여 부정극어들과 부정함축술어의 의미유형을 각각 파악하고, 부정함축술어의 영향권 내에 부정극어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정극어의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Partee(1987)는 명사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통사범주가 꼭 하나의 의미유형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족(family of types)에 대응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명사구의 의미유형에는 지시적(referential) 유형인 e , 술어적인(predicative) $\langle e, t \rangle$ 유형, 그리고 양화사적인(quantificational)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유형이 있다고 보고, 개개의 언어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포착하는데 적합한 가장 단순한 유형을 할당받고 나서 유형인상(type-lifting) 규칙을 통해서 상위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John*의 경우 *John and every woman*과 같은 연접을 설명하기 위해 지시적 유형인 j 에서 양화사 유형인 $\lambda P[P(j)]$ 로 유형이 인상된다고 본다. *every man*의 경우에는 오로지 양화사 유형의 해석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정극어의 의미유형도 이러한 관점으로 규정한다.

- (49) De decaan ontbeert enig gevoel van varantwoordelijkheid.
The dean lacks any sense of responsibility.

위의 예문에는 부정극어 *enig* 'any'가 부정함축술어 *ontbeert*가 취하는 명사구 논항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부정극어 *enig gevoel*은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한정(indefinite) 표현으로서 의미유형이 $\langle e, t \rangle$ 라고 할 수 있다. *ontbeert* 등의 부정술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Hoeksema and Kelin(1995)은 이들이 내포동사(intensional verb)와 의미유형이 같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포동사는 $\langle e, t \rangle$ 유형의 논항을 취하는 함수로 해석된다. 부정함축술어를 내포동사와 같은 의미유형으로 간주하면, 위의 예처럼 부정함축술어가 비한정 표현인 *enig gevoel*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부정함축술어를 일반적인 타동사처럼 지시적, 또는 개체적(individual)인 e 유형을 논항으로 취하여 동사구를 형성하는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유형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 술어가 하향함의 함수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술어의 함의 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술어의 논항으로 들어가는 표현들 간의 함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두 개체간의 함의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함축술어를 <e, t> 유형의 논항을 취하여 동사구를 형성하는 함수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49)에서 *ontbeert*는 *enig*(또는 *enig-N*)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로서, *enig*는 *ontbeert*의 영향권(scope) 내에 있으므로 이 술어에 의해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다시 *ook maar iets*의 문제로 돌아오면, (48)에서 확인했듯이 *ook maar iets*는 *enig*와는 달리 부정술어의 직접적인 논항 위치에는 나타날 수 없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k maar iets*는 부정술어의 논항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부정술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표현, 즉 양화사적 유형 <<e, t>, t>로 규정되어야 함을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이러한 설명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50) Niemand heeft ook maar iets ontkend.
nobody has anything at all denied.

위 문장의 의미는 'for nobody, there is anything that he denied'로, *ook maar iets*는 술어 *ontkend*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서, 이 술어에 의해서는 허가받을 수 없다. 이 문장에서 *ook maar iets*를 허가해 주는 것은 *ook maar iets*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 취하고 있는 부정 표현 *niemand*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48)에 적용시켜보자. (48b,d)가 비문인 이유는 *ook maar iets*가 부정술어를 논항으로 취하고 있어서, 이 부정극어에 대한 허용자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48a,c)는 부정함축술어가 *dat*가 형성하는 내포절을 이끌며 이 내포절 내에 부정극어가 나타나므로 부정극어는 부정술어의 영향권 내에 있고, 따라서 그 부정술어들의 부정적 영향력(negative force)이 *ook maar iets*에 미칠 수 있어서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부정극어 *더 이상*의 허가조건

5.1. 부정함축술어에 의한 허가

Hoeksema and Klein(1995)에서는 부정함축술어를 <e, t> 유형의 논항을 취하는 함수로 보고, 그 영향권 안에 부정극어가 포함되는 지에 의해 부정극어의 허가조건을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이 한국어 부정극어 *더 이상*의 허가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우선 부정함축술어가 <e, t> 유형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견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부정함축술어들은 내포절을 주로 논항으로 취하며,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더라도 그 명사구의 의미가 대부분 술어적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논문을 포기했다*라는 문장에서 *포기하다*의 대상은 ‘논문’ 그 자체라기 보다는 ‘논문을 쓰다’라는 행위일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하다*를 생략한 “술어성 명사”가 부정함축술어의 논항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51) a.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기로 하되...
 b.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이 너무 많은 경우 *더 이상*의 차입은 곤란하다.

이와 같이 부정함축술어가 취하는 논항은 기본적으로 “술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더 이상*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부사(adverb)는 술어 수식어(predicate modifier)로서 의미유형은 <<e, t>, <e, t>>이다. 그러나 de Swart(1991)는 부사들 중 통사적으로는 수식어로 분류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양화사의 역할을 하는 부류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양화부사(Quantifying adverb)

라고 부르고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된 표현들은 *always, never, sometimes, seldom, often* 등의 빈도부사(frequency adverbs)와 *twice, several times* 등의 반복부사(iterative adverbs)들이다.

본고에서는 부사 *더 이상*이 의미상 양화사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의미유형은 술어 수식어와 같은 <<e, t>, <e, t>>로 규정하기로 하겠다. 아래에서는 *더 이상*의 의미특성을 간단히 살펴본 후 부정함축술어에 의한 허가조건을 함수-논항 구조(function-argument structure)로 규명해 보기로 한다.

*더 이상*은 맥락(context)이나 상황(situation)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어떤 기준점(norm)이 존재할 때, ‘그 기준점까지는 어떤 행위나 사건이 발생해왔으나, 그 기준점 이상에서는 그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더 이상*이 결합하는 부분이 이 표현이 양화하는 영역(domain)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행위나 사건 또는 시간, 양의 축이 될 수 있다.

- (52) a. 나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행위>
 b. 정부는 *더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c. *더 이상* 물이 없다. <시간 또는 양>

특정적으로 *더 이상*은 기준점 이전까지는 행위나 사건이 발생해 왔다는 전제(presupposition)를 항상 수반한다. 예를 들어 (52a)는 ‘나는 어떤 시점 이전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52c)는 ‘어떤 시점 또는 물의 양의 어떤 기준점까지는 물이 존재했지만 그 이후로는 또는 그 양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은 *any*와 같이 비한정적(indefinite)인 속성도 지니고 있다. *더 이상*이 비한정적이라는 점은 그에 대응하는 한정(definite) 표현인 *그 이상*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상*은 한정표현으로서 *더 이상*에서와 같은 부정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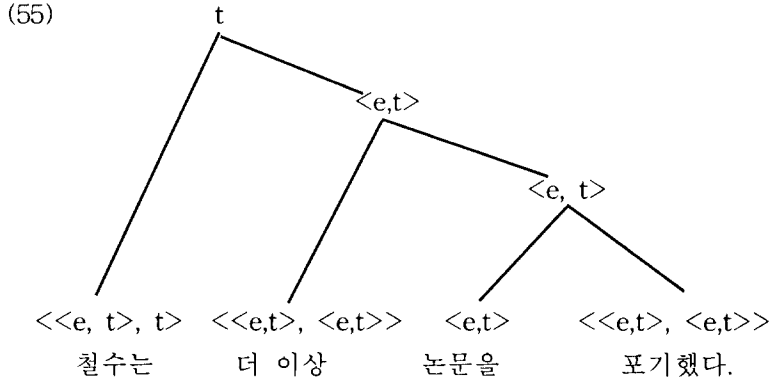
다. 즉, 그 *이상*은 부정맥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맥락에서도 자유롭게 나타난다.

- (53) a. 철수는 그 *이상* 알고 있다.
 b. 철수는 영희를 친구관계 그 *이상*(으로)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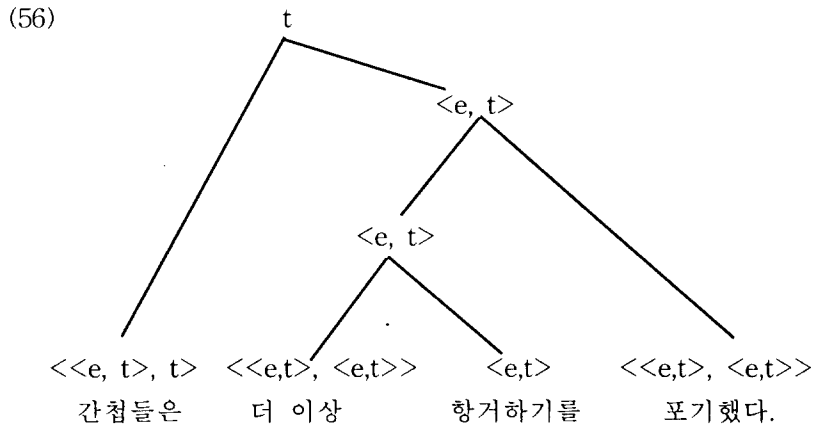
*이상*으로 *더 이상*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의미유형은 동사구를 취해서 다시 동사구를 형성하는 <<e, t>, <e, t>>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제 이를 토대로 부정극어 *더 이상*이 부정함축술어의 내포절 내에서는 허용되는 반면, 부정함축술어가 내포절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대조적인 현상을 설명해보자. 이 현상을 다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54) a. *철수는 *더 이상* [논문을] 포기했다.
 b. 철수는 [*더 이상* 논문을 쓰기를] 포기했다.

부정극어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허용자의 부정적 영향력(negative force)을 받기 위해, 허용자의 영향권 내에 부정극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은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이므로 반가법 함수표현의 영향권 내에 있어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53a)에서는 *더 이상*이 동사구 전체, 즉 *논문을 포기하다*와 결합할 때 동사구가 논항표현(argument)이 되고 *더 이상*이 함수표현(funcutor)이 되어 *더 이상*은 부정함축술어의 밖에 위치된다. 따라서 반가법 함수인 *포기하다*의 영향권 밖에 *더 이상*이 존재하므로 이 술어에 의해 허가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그 결합관계를 도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반면 (54b)는 -기름에 의해 형성된 내포절 안에 더 이상이 위치되어 있어서 더 이상이 술어 포기하다의 영향권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즉, 더 이상은 논문을 쓰기름을 논항으로 취하여 내포문을 형성하고, 그 전체 결합이 포기하다의 논항이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포기하다라는 함수표현의 영향권 안에 더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이 허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이 부정함축술어의 명사구 논항의 내포절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 (57) a. 나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정신적 여유를] 잃게 되어...
 b. 어린이들은 교사의 대답을 유권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활동을] 포기하게 되며...

(57a,b)에서 *더 이상*은 *정신적 여유*, *활동* 등의 명사를 수식하는 절 내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잃게 되다*, *포기하다* 등의 술어가 항상 부정극어 *더 이상*에 대해 넓은 영향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5.2. *없다*, *모르다*에 의한 허가

5.1절에서는 부정함축술어에 의해 부정극어 *더 이상*이 허가되는 양상을 부정함축술어와 *더 이상*의 영향권 관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없다*, *모르다*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한다.

없다, *모르다*가 내포절이 있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나 부정극어 *더 이상*과 *아무도*를 자유롭게 허가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관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없다*, *모르다*의 경우에 부정함축술어에서의 내포절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좀더 부정(negation)에 가깝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없다, *모르다*의 의미를 부정함축술어의 의미와 비교해 보면, *없다*와 *모르다*는 그에 대한 긍정 대당자 *있다*, *알다*에 대해 “모순적(contradictory) 반의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부정함축술어들은 모순관계가 아닌 “반대적(contrary) 관계”만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없다*의 경우, ‘없으면 있지 않은 것이고,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라는 상호함의가 성립하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와 *있다*는 서로 모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모르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

하면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모르다*와 *알다* 역시 서로 모순적이다. 다시 말하면 *없다*는 *있지 않다*와, *모르다*는 *알지 못하다*와 상호함의적 동의관계에 있다.

반면, *싫어하다*와 같은 부정함축술어는 그에 대한 긍정표현인 *좋아하다*와 모순적 반의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싫어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중간 단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없다*와 *모르다*는 *싫어하다*나 *어렵다*와 분명히 다른 범주로 생각된다. *없다*와 *모르다*는 각각 긍정표현 *있다*, *알다*와 명시적 부정소가 결합된 의미로서, 예컨대 *모르다*는 역사적으로 *못 알다*에서 오듯이, 명시적 부정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로 그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고 하는 부정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없다*와 *모르다*는 명시적 부정이 긍정 표현과 통사적으로 결합한 경우인 *있지 않다*, *알지 못하다*에 대해 논리적 함수관계까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반연산 함수로는 해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없다*, *모르다*는 부정함축술어보다 부정적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부정함축술어가 보이는 부정극어와의 영향권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없다*, *모르다*는 항상 부정극어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 둔다고 보면, 이 술어들이 부정극어가 내포절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지만, *없다*와 *모르다*가 부정극어보다 항상 넓은 영향권을 가지는 것은 함수-합성(function composition)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본고는 부정극어 더 이상의 분포상의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Zwarts(1990)와 Nam(1996)의 논의에 기반하여 부정극어 *더 이상*이 반가법 함수를 허용환경으로 요구하는 강한 유형의 부정극어임을 말뚝치 용례를 포함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가하는 또 다른 환경, 즉, *싫어하다*, *포기하다*, *어렵다* 등의 술어들을 포착하고, 이들을 부정함축술어라고 명명하였다. 이 술어들이 *더 이상*을 허가할 때는 부정극어가 반드시 내포절 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내포절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없다*, *모르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포절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Hoeksema and Klein(1995)는 화란어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의 내포절 제약을 부정극어와 부정함축술어 간의 영향권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의 부정극어 *더 이상*의 허가조건을 함수-논항 구조로 나타내어 보았다. *더 이상*은 부정함축술어가 취하는 내포절 내에 있을 때에만 그 술어의 영향권에 포함되므로, 부정함축술어가 내포절을 취하지 않으면 그 술어에 의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없다*와 *모르다*는 부정함축술어보다 부정적 의미가 더 강한 술어로서, 항상 부정극어보다 더 큰 영향권을 갖고, 따라서 부정극어를 허가할 때 내포절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윤신. 1995. '아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남지순. 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1," 어학연구 29.3.
- 시정곤. 1997.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조건," 언어 22.3.
- 윤영은. 1997. "'ANY'의 상보분포와 의미론," 언어 22.3.
- 이정민. 1979. "한국어 원인·조건 구문의 통사론과 의미론," 제 1회

- 국제 한국학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이정민. 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 이정민. 1994. "언어와 인지—의미표상을 중심으로," 장석진, 편.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 홍재성 외. 1997.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 한국과학기술원. 1994. 대한민국 국어정보베이스.
- Chung, D. 1997. "NPI Types Based on the Trigger Strength,"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Seoul, Korea.
- Gamut, L. T. F. 1991. *Logic, Language and Mean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eksema, J. and H. Klein, 1995. "Negative Predicates and Their Arguments," *Linguistic Analysis* 25, 146-80.
- Krifka,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57.
- Lee, C. 1993. "Frozen Expressions and Semantic Representation," *Language Research* 29.3.
- Lee, C. 1996.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18, 505-523.
- Lee, C. 1998. *How Many Types of NPIs Are The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 Linebarger, M. 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325-87.
- Nam, S. 1994. "Another Type of Negative Polarity Item," in M. Kanazawa and C. Pinon; 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Stanford: CSLI, Stanford University.
- Nam, S. 1996. "The Semantics of *before* and Negative Polarity," read at the *11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Dec. 20-22, 1996.

- Partee, B. H.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 Shifting Principles," in J. Groenendijk, D. de Jongh and M. Stokhof. eds.,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Dordrecht: Foris.
- Progovac, L. 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49-80.
- de Swart, H. 1991. *Adverbs of Quantification: A Generalised Quantifier Approach*. Groningen University dissertation.
- Zwarts, F.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in S. Busemann, ed., *Views on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I*. Berlin.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151-742
 E-mail: jyng@plaza.snu.ac.kr
 cleee@plaza.snu.ac.kr

접수일자: 1998. 5. 15.

게재결정: 1998. 6. 29.